



우리 원전산업이 가야 할 길

유연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경희대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KDI국제대학원 MBA과정 졸업

제30회 행정고시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장, 원자력산업과장
외교통상부 주호주대사관 상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2014~)

지난 5월 20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로 설치식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지난 2009년, 그동안 세계 원전 수주 시장을 주름잡던 미국·프랑스·일본 등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UAE 원전 수주를 이뤄낸 지 5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며, 원전 기술의 요체이자 원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원자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제작하여 국제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제 원자로 설치를 기점으로 2020년까지 총 4기의 KOREA 브랜드 원전이 차근차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원전 수주 시장에서 국제적인 원전 공급 국가로서 이전과는 달라진 위상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전산업은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엔진

1인당 국민소득 4만 3천 달러를 자랑하는 UAE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일궈나가며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UAE 원전 수출은 단지 대형 플랜트의 수출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UAE와 100년 동반자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원전 건설을 위해 연 2천여 명 규모의 한국 인력이 UAE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원전 운영 지원을 위해 약 2천명의 인력이 추가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 개발, 의료,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이다.

1978년 국내 첫 상업 원전을 가동한 이래, 30년 넘게 국가의 핵심 발전원으로서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원전산업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엔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원전산업이 국내에서 직면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우리에게 세계 무대에서 이룬 성과와 위상에 부합하는 내실을 다지



원전 중앙제어실. UAE에서의 성과가 우리 원전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관계된다면, 안전과 청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목표한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해 오고 있었던 반면, 그 과정에서는 모자람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열정과 축적된 실력이라면, 새로운 원전 시장에서 우리 젊은 인력들이 활약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의 원전 관련 비리·위조 사건들은 국민들께 많은 심려와 불편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약화된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의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에는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산업이 지켜야 할 원칙

우리 원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국민의 자랑이 되고, 동시에 국내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종사자가 정해진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관련된 기관 및 부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공조를 통해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는 확실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윤리의식이 모든 종사자에게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원전 산업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간 실추된 신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

도 이상의 자정과 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안전 최우선 원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원전산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여 비리가 근절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안전과 청렴

UAE에서의 성과가 우리 원전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관계된다면, 안전과 청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목표한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해 오고 있었던 반면, 그 과정에서는 모자람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열정과 축적된 실력이라면, 새로운 원전 시장에서 우리 젊은 인력들이 활약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UAE 현장에서 느꼈던 자긍심을 다시 경험할 기회가 앞으로 더욱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어, 모래폭풍과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혹서기 등 열악한 사업 환경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UAE 현장 근로자와 국내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원전산업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